

집값 급등에 '임비 운동' 확산

미국 내에서도 집값이 비싼 샌프란시스코만 연안 지역(베이 에어리어) 등지에서 어떤 형태의 주택이든 많이 짓자는 '임비' (Yimby) 운동이 주류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20일 '연합뉴스' 가 웨스트트리트저널(WSJ)을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이날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캘리포니아주 하원 선거는 일종의 임비(Yes in my back-yard) 운동 국민투표가 됐다. 어느 후보가 더 많은 주택 건설을 원하는지 평가하는 선거가 됐다는 것이다.

임비는 자신의 사는 지역에 특정 시설이 건립되는 것을 반대하는 '남비' (Nimby·Not In My Back Yard)의 반대말이다.

임비 주장자들은 집값 상승과 노숙자 문제를 해결할 최선의 방안이 고급 아파트든 정부 보조 임대주택이든 집을 더 쉽게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주택 공급을 늘리지 않고 현상 유지하는 것은 저렴한 주택 구매 희망자나 주택 임차인들을 희생시키면서 기존 부동산 소유자를 더 부유하게 만든다는 게 이들의 논리다.

2011년 세인트루이스에서 베이 에어리어로 이사 온 소냐 트라우스 씨가 이 지역의 높은 집값에 깜짝 놀라 지역 관리들에

게 주택개발 지원을 호소하는 편지를 쓰고 뜻을 같이하는 친구들과 지인들을 조직한 것이 임비 운동의 시발 중 하나가 됐다. 브루킹스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오늘날 이런 주택건설 지지 운동단체가 29개 주에 걸쳐 140개가 넘는다.

이런 단체들이 많아지자 베이 에어리어와 같이 민주당이 집권한 지역의 여론도 뒤바뀌었다고 WSJ은 전했다. 과거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개발은 환경에 나쁘고 자본주의가 미쳐 날뛰는 신호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지만, 이제는 달라졌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지난 수십년 동안 늘어나는 인구에 맞춰 필요한 것보다 집을 적게 지어 주민들이 부족한 집을 놓고 경쟁하는 처지가 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다.

임비 운동에 대한 반론도 적지 않다. WSJ은 반대자들은 과도한 건설이 교통량을 늘리고 기존 주민이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며 저소득층을 위한 낮은 가격의 주택 건설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도시에서는 지역 단체와 세입자 권익옹호 단체들이 종종 주택개발 계획을 저지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장례 문화 변화... "화장이 과반 차지"

미국에서 장례문화에 큰 변화가 일어나면서 화장이 20년 전보다 두 배 이상 늘어 전통적 매장 방식을 누르고 미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장례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 20일 '연합뉴스' 가 워싱턴포스트(WP)의 전날 보도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화장을 선호하는 경향은 앞으로도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이는 죽음에 대한 미국인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아메리카 화장 협회(CANA)에 따르면 화장률은 20년 전 27%에서 2020년 56%로 증가했으며, CANA와 전국 장의사협회(NFDA)는 2040년에는 미국인 80% 이상이 매장보다 화장을 선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에서 화장이 증가하는 요인으로 는 종교를 가진 국민수 감소가 거론된다. 지난해 미국 국민 중 교회 등 종교시설에 등록된 사람 수는 겐럽이 1937년 처음 조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졌다.

화장이 매장보다 편리하고 저렴한 것도에 대한 인식이 늘고 있는 것도 화장 증가의 요인으로 꼽힌다. NFDA에 따르

면 고인 대면과 매장 등으로 진행되는 전통 장례의 중간 가격은 7천848달러지만 화장의 중간 가격은 2천550달러이다. 고인 대면을 거쳐 화장하는 장례의 중간 가격은 6천770달러 정도다.

또 유족이 여러 주에 흩어져 살고 있을 경우 방문하기 힘든 특정 장소에 매장하기 위해 많은 돈과 노력을 들인다는 게 큰 의미가 없다는 인식도 늘어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 화장은 민주당 지지도가 높은 주와 유동 인구가 많은 주, 겨울철 추위가 극심한 주 등에서 인기가 더 높다. 네바다·워싱턴·오리건·메인주 등의 화장률은 이미 80% 안팎을 기록하고 있지만 종교인 비중이 높은 유타주나 다른 남부 주들은 50% 정도에 그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구 구성상 미국에서 연간 사망자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민들은 이에 대비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미국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30년 후 65세 이상 인구는 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통계국(Census Bureau)에 따르면 2050년 연간 사망자 수는 2019년보다 25% 정도 늘어나고 2055년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해 선생과 풀어 보는 한주간의 **띠별 운세** 4월 25일 ~ 5월 1일, 2022년

청해 역학 학술원(淸海易學學術院)
예약전화: (714) 534-4645
9618 Garden Grove Blvd., #108
Garden Grove, CA 92844

남자 길일 : 25, 26, 29, 30 여자 길일 : 27, 28, 1

 취	달이 차면 기울 듯이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일을 성취한 다음에는 마무리를 잘하고 내부 관리에 충실하여야 합니다. 현상 유지에 더욱 치중하고, 모험적이고 무리가 따르는 사업은 삼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업적인 교섭은 서로 흠이 없기 쉬우니 적당한 선에서 양보해야 합니다. 금전○애정○건강△	 말	반복되는 생활을 유지함으로써 생활의 안정과 기쁨을 얻게 됩니다. 원래 하던 일을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노력하며, 허망한 일을 계획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새로운 거래나 대규모 사업은 거래나 대규모 사업은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무리한 일을 벌일 때가 아닙니다. 금전○애정○건강△
 표소	직장인이자 지위가 높아지고 학생은 성적이 향상 됩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처신하지 않으면 도리어 실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한 법, 성급하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윗사람에게는 공손하고 아랫사람에게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덕을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금전○애정△건강○	 양	다른 사람의 의사를 따르고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혹 스스로 옳다고 생각되는 일이 있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고집을 부리지 말고 윗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상대방에 동조 하든지 주위의 분위기에 융합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겸손하고 유순한 자세를 가지면 복록이 저절로 따르게 마련입니다. 언행을 조심하고, 쓸데없는 시비나 금전적인 분쟁을 조심해야 합니다. 금전△애정○건강○
 여범	옛것을 버리고 새 것을 취하는 운세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여 일을 추진하면 예상 밖의 소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인화 단결이 중요합니다. 윗사람에게는 공손하고 아랫사람에게는 관대하게 처세하여야 합니다. 낡은 것보다는 새롭고 참신한 것에 뜻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금전○애정○건강△	 원숭이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고 이치에 따라서 행동하면 길하지만, 만일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어려움을 초래하게 됩니다. 준비 없이 무작정 일을 벌이면 소문만 크게 나고 실속은 없을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은 도모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적인 충실을 기하고 안정을 취하면 뜻밖의 행운을 얻게 됩니다. 금전△애정○건강○
 토끼	해와 달이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지는 격입니다.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생활해야겠습니다. 마음에 확실히 정한 바가 없으면 좋은 때를 놓쳐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재물을 모을 수 있는 운세이므로 뜻밖에 횡재하여 재물이 생기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기를 당하여 재물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냉철한 판단력으로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금전△애정○건강○	 닭	원래 하던 일을 지키고 스스로의 분수를 지켜야 되는 시기입니다. 부동심으로 지조를 지키고 좋은 때가 오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경솔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장래를 위하여 실력을 쌓는 것이 상책입니다. 때와 장소에 맞게 진퇴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칠 때는 그치고 행할 때는 행하며,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금전○애정△건강○
 용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며 좋은 분위기가 무르익을 것입니다. 분주하고 왕성한 활약이 기대되는 때입니다. 그러나 운세가 강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앞질러 나가는 경향도 있습니다. 새로운 일에 착수하는 것은 좋지만, 먼저 장래에 대한 전망을 충분히 세우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금전○애정○건강△	 개	밝은 임금이 어진 신하를 만나고, 기회를 얻어 대업을 성취하는 격입니다. 주변의 상황이 뜻과 같이 이루어지니 안정감과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달이 차면 기울 듯이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일을 성취한 다음에는 마무리를 잘하고 현상유지와 내부 관리에 충실해야 합니다. 금전○애정○건강△
 돼지	원래 하던 일을 지키고 스스로의 분수를 지켜야 하는 시기입니다. 경솔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장래를 위하여 실력을 쌓는 것이 상책입니다. 사업은 두 가지 일을 동시에 벌이기보다는 한 가지로 집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힘의 분산을 막아야 합니다. 시간과 장소에 따라 진퇴를 분별해야 합니다. 금전○애정○건강△	 돼지	드디어 세상에 나아가 큰 일을 성취하게 됩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의 행동에 대한 방침을 정하고 착수하여야 합니다. 혹 어려움이 있더라도 끈기와 노력만 있으면 앞길은 탄탄대로일 것입니다. 안에서 일하는 것보다 밖으로 나가는 것이 좋고, 작은 일보다 큰 일에 뜻을 두어야 합니다. 금전○애정○건강△